

[보도자료] 쿠팡 CPLB,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중소 제조기업 PB상품 공동개발 나서

2025. 9. 9.



쿠팡 CPLB와 경북경제진흥원이 9일 경북 구미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경북지역 중소상공인 제품 브랜드화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주 CPLB 상무, 송경창 경북경제진흥원장.

■ '2025 경북 PMF 상품개발 사업' 업무협약 체결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통합 지원

2025. 09. 09 서울 - 쿠팡이 경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들과 협업해 PB상품을 개발한다. 쿠팡의 자체브랜드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과 '2025 경북 PMF 상품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PB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품 기획부터 생산, 마케팅, 유통까지 전 과정을 CPLB와 진흥원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우수한 제품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브랜딩 역량 부족과 온라인 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기업들에게 판로 확대의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PLB는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쿠팡 PB 입점과 전국 유통망 확대, 해외 진출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역 우수 제품의 발굴과 품질관리, 개발 지원을 담당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양측은 이날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진흥원 본사에서 '경북지역 중소·상공인 제품 브랜드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CPLB에서 이형주 상무와 윤경원 상무 등, 경북경제진흥원장에서 송경창 진흥원장과 남상범 기업지원본부 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CPLB와 진흥원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우선 선정된 지역 중소 제조사를 직접 방문해 상품 품평회를 진행, 입점 가능성을 검토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약 4개월간의 집중 개발 기간을 거쳐 쿠팡을 통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경수 CPLB 대표는 "CPLB는 제품력 있는 우수한 중소 제조사를 발굴해 합리적인 가격의 PB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선보여왔다"며 "앞으로도 중소 제조사들 지원을 강화해 이들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창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